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기획세션 Ⅲ : DMZ로 연결되는 한반도 생태축]

김주은 평화공공외교협력단

2021년 5월 21일 개최된 2021 DMZ 포럼 기획세션 Ⅲ은 DMZ로 연결되는 한반도 생태축 (Korean Peninsula Eco-Corridor to be connected by DMZ) 주제 아래 시작되었다.

이 기획 세션은 위도 38도 선에서 탁월한 녹색을 보여주는 한반도,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또 하나의 자연의 선을 형성해온 한반도 허리인 DMZ,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의 뼈대를 연결하는 거점이 되는 지정학적인 요인을 통하여 백두산과 한라산을 통한 한반도 자연보호 협력의 기반을 이루고, DMZ는 백두대간을 잇는 한반도 생태축의 거점이 되며, 이는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 DMZ분야의 전문가들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자리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이동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과 전성우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수재 명예연구위원과 DMZ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이 토론을 맡아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전성우 교수는 서론에서 DMZ로 연결되는 동북아 생태네트워크에 구축에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배경으로는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이나, 한국전쟁 이후 1953년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고 DMZ라는 인위적인 장벽이 설치되면서 섬처럼 고립된 형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나마 서식하고 있던 야생동식물들은 1960-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 질 악화, 서식처 훼손, 개체 및 종수 감소, 희귀동식물의 멸종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 발생된 질병들과 오늘날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COVID-19 또한, 인간의 과도한 자원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자연생태계 균형 파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선 위협의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말부터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서식하고 있는 자연 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조사 결과들을 기반으로 2005년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통해(2005년-2006년) 한반도 핵심생태축으로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의 3개 핵심지역이 지정되었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한강수도권,태백강원권,낙동강영남권,금강충청권,영산강호남권)권의 5대 광역권역별 광역생태축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이를 도시 내부까지 연결하기 위한 도시생태축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성우 교수는 이에 따라 한반도 생태계 균형회복을 위해서는 고립된 섬 생태계가 아닌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대한민국은 고립된 생태계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생태계, 동북아와 연결된 살아있는 생태계로 연결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뿐만이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 추진을 위해 한반도 허리에 위치한 장벽이자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수행중인 DMZ 의미를 파악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본론에서 전성우 교수는 DMZ일원의 공간적 범위, 다양한 환경정보, 법상의 보호지역, 습

지, DMZ의 생물종 및 멸종위기종, DMZ일원의 남북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계획, IUCN (한반도 평화공원 조성) 제안이라는 소주제 아래 DMZ일원 현황 및 의미를 언급하였다. DMZ일원이란 DMZ내부와 민통선 남방한계선 북쪽지역으로서, 60년간의 군사 활동을 제외하고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어 생물의 다양성이 높고 자연생태계가 최대한으로 유지 보존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은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과는 남북으로 연결되고 도서연안지역과는 동서로 연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적 이용, 생태적 보전에서 최후의 보루지역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 전성우 교수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물종 멸종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생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고립된 남한의 생태계가 DMZ를 통해 북한의 백두대간에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북아의 공간적 범위지정 및 대상종 선정, 방법론 설정(이론적 모형 구축, 대기보정, 정규식생지수도 및 생태적 기반도, 토지피복지도 및 서식처 구분도), 정책 제안을 이야기하였다.

전성우 교수는 지난 20년간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통해,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방사한 결과 안정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민주지산-덕유산-수도산-가야산으로 서식처를 확산한 것이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인제부근과 DMZ안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되고 있어 지리산부터 백두대간을 거쳐 DMZ내부까지 양호한 서식처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DMZ일원의 인공장애물들을 제거한다면 지리산부터 DMZ를 넘어 북한까지 서식영역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전성우 교수는 조속히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의 일환으로 DMZ일원 남북생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후 UNDP(2002)가 참여하고 있는 Tumen NET 사업에서의 국경 간 진단분석과 UNESCO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와 사업을 통해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함을 주장하였다. 전성우 교수는 앞선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생태네트워크 추진은 멀기 만한 꿈은 아니라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발제 이후, 이수재 명예 연구위원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재 명예연구위원은 DMZ지역은 생태네트워크의 '핵심축'이자 중요한 '생태유보지'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앞서 발제에서 언급되었던 기후변화라는 변수를 통해 동서방향과 더불어 남북방향의 통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즉 정치적인 문제가 여전히 잔존해있는 지역이나, 앞으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승인사례처럼 국제적인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를 통한 남북 간의 교류 및 인적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긴장완화가 조속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 경기도 지자체에서 할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째, 동서교류가 활발한 만큼 남북방향도 활발한 교류추진, 둘째, 감시체계와 생태회랑지역을 선정, 셋째,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DMZ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은 '생태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조류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서쪽 지역에 대한 조사와 그 데이터가 요구되며, 둘째, 돼지열병과 같은 사례를 통해 무분별한 동식물의 죽임은 생태계의 엄청난 교란을 가져올 뿐,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생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 안에서의 상호작용이며 그 상호 작

용 안에서의 인간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셋째, 습지지역 및 앞선 지리산 반달가슴곰 사례와 같이 종에 대한 복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태축의 복원 가능성을 염두 확장해나가야 하며, 넷째, DMZ 비무장지대의 생태지역을 통해 이 공간이 전 세계인들의 재미있는 실험적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정치적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제재 조치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승호 소장은 DMZ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를 살리고 보존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시민의 인식과 의식 속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방문 및 그 지역에 대한 농산물 판매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시민의 의식과 그 인식 속에 끊임없이 기억되고 통일이라는 미래에도 이 지역을 끊임없이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인 이동근 좌장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첫째, DMZ로 연결되는 한반도 생태축을 위한 국제적 참여, 둘째, 정치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 체계화, 셋째, 시민의 참여(Citizen Science)와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 등 3가지를 정리하며, DMZ로 연결되는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했다.